

담배는 옛날부터 즐겨온 기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담배를 끊을 수 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 시대에는 인권존중이라는 생각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됩니다. 그런 예를 들어보면 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회사 업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나면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재판 결과도 있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다른 무언가에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영향을 안받을래야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작문과제2’에서 2번째 말처럼 누구에게나 담배를 필 권리가 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됩니다. 이왕이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럴텐데, 그 반대라면 누구든 기분이 나빠질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좋지않은 영향을 받는다면 부득이하지만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수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모두 알다시피 나쁜일입니다. 저도 담배를 피우고 있기때문에 주위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일을 반복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규칙을 정해서 금지하는 것은 좀 무섭지만 저같은 사람이 많을테니,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을 위해 규칙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더 많은 규칙이 생기기때문에 인간다운 면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저 사람마다 각기 다르지만 서로 노력해서 진실된 삶을 산다면 좋을텐데...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 수록 세상은 발전과 더불어 개인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윤리적인 면이 서서히 서서히 무시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세계의 여러 단체가 이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단체라든지 인권 단체등 전부가 이러한 취지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